

主要諸國의 肉類消費動向

1977年度 世界主要諸國의 1人當 肉類消費量은 全般的으로 增加勢를 나타내었다. 이는 肉類總量에 대한 推計일 뿐이며 肉種別 消費水準에 대해서는 推計되지 않았는데, 1人當 消費水準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西獨은 돼지고기, 뉴질랜드와 이스라엘은 양고기의 消費에서 各各 首位를 지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肉類消費량이 減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人當 거의 120kg을 消費하여 세계에서 肉類를 가장 많이 消費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肉類消費構成을 보면 약 60%를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양고기·돼지고기·家禽肉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肉類消費량이 1人當 100kg 以上인 國家는 美國·아르헨티나·뉴질랜드·캐나다 등이다.

世界主要諸國의 1人當 肉類消費動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美 國>

1977年度 美國의 肉類消費量은 事實上 1976年과 크게 變하지 않았다. 이것은 쇠고기消費가 약간 줄어든 반면, 돼지고기와 家禽肉의 消費增加로 總量에 있어 增減量이 서로 相殺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日 本>

日本은 蛋白質의 攝取源으로서 肉類보다는 生鮮을 주로 많이 消費하고 있는데 1977年度 日本人의 肉類消費는 前年보다 약간 增加되어 1人當 26.8kg에 달했다.

<E C>

1977年度 EC의 肉類消費量을 보면 一部國家에서 1人當 消費량이 減少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一部國家의 消費增加로 相殺되어 結果적으로 全體 平均消費量은 약간 增加되는 趨勢였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消費가 약간 減少하고 프랑스는 다소 增加하여 프랑스를 1位의 位置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國家는 거의 같은 消費水準으로 二大肉類消費 國家로서의 地位를 계속 維持하고 있다.

EC內에서 肉類消費에 있어 增減幅이 크게 나타난 國家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이다. 즉, 아일랜드의 1人當 肉類消費量은 2年間 계속 減少勢를 보여 1977년에는 거의 3kg이나 減少

되었는데, 이것은 EC內에서 가장 큰 減少趨勢인 것이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1977年度中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生産이 增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消費는 減少하였고, 이에 반해 다른 EC國家에서는 需要가 계속 크게 增加되어 아일랜드産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더욱 많이 輸入하게 되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1人當 肉類消費가 2.3kg 增加하여 EC內에서 가장 큰 增加를 보였다.

1人當 肉類消費에 있어 增減幅이 크게 나타난 것은 EC에만 限定되는 것은 아니어서 3kg 이상 增加된 國家로는 헝가리·뉴질랜드·베네스엘라·소련이 있고, 3kg 以上 減少된 國家로는 우루과이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

<헝가리>

헝가리의 1人當 肉類消費量은 過去 3年 동안 계속 增加되어 왔다.

헝가리의 肉類消費構成을 보면 돼지고기가 全體消費의 거의 半을 차지하는데, 1977年度에는 1人當 돼지고기消費量이 약 4kg이나 增加됨으로써 肉類消費가 가장 크게 增加된 國家였다.

이와 같이 肉類消費가 增加된 理由는 生産과 輸入이 다 같이 增加된 反面 輸出은 減少하는 등 自由市場經濟體制가 아닌 이 나라에서 肉類의 利用可能量이 增加되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1人當 肉類消費量이 1975年水準으로 回復됨에 따라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의 1人當 消費가 모두 增加되었다. 특히 肉類消費의 약 8分の 1 밖에 되지 않는 돼지고기의 消費量은 國內 生産量이 크게 增加된데 반해 價格이 適正水準을 維持한 結果로 크게 增加되었다.

<소련>

소련은 1976년에 肉類消費가 減少되었으나 1977년에는 1人當 肉類消費量이 回復되기 시작했다. 1人當 肉類消費는 1974년에 記錄의인水準에 이르렀고 이듬해인 1975년에도 다시 약간 增加되었는데, 그 理由는 多量의 肉類輸入과 그해 食糧의 凶作에 따른 家畜, 특히 돼지의 屠殺政策에 基因된다.

그러나 1975년에 있었던 家畜屠殺政策에 따른 돼지數의 減少와, 減少된 肉類輸入 때문에 1976년에는 總肉類供給이 減少되었던 것이다. 소련의 肉類消費構成을 보면 肉類消費의 약 3分の 1이 돼지고기이다. 1977년에는 돼지고기·쇠고기·家禽肉의 生産增加와 輸入擴大로 肉類消費가 增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1974年과 1975年의 記錄的인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사부

<뉴질랜드>